

보 도 설 명 자 료

(17.10.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 수출 대신 ‘해체기술 수출’로 정책 바꾼다”
(10.23, 한겨레)

1. 기사내용

- 이명박·박근혜 정부의 ‘해외 원전 수주 정책 폐기’를 유력한 수출 수단 상실로 받아들이는 쪽에 ‘원전 해체 시장 진출’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도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진 위험성, 다수 호기심, 밀집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며,
 -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임
- ☐ 국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산업 보완 대책으로써 원전 수출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,
 - 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기여할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 (044-203-5330)